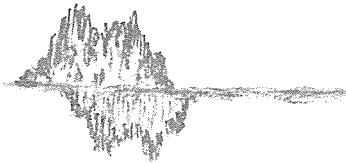


86년 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앞두고,
 국민의 생활, 문화, 위생, 역사 모두
 하나하나 신경을 써야할 시기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건사회부의
 산하단체로서 아직 4살짜리의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하지만 순박한 어린아이의 목표는
 대한민국 전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사명감을 안고 이세상에 눈을떴다.

健康管理事業의 方向을 模索한다.



事業課長 李 焯

物質萬能化 時代에 共存하고 있는 人
 間의 最大 幸福은 健康을 維持하면서
 人生을 즐기는 삶에 있는데 現代社會는
 찬란한 物質文化 및 經濟利器를 이룩
 하면서부터 環境汚染 및 各種疾病을 誘
 發하는 惡循環(?)을 계속해 오고 있다.

先進國의 隊列에 參與하려는 우리
 意志속에서 실로 짧은 時日內에 놀라운
 經濟를 이룩하였지만 이러한 循環 속

에서 文明의 利器가 隨伴하고 있는
 環境汚染 및 各種 疾病은 必然的으로
 우리社會에 커다란 問題點으로 臺頭 되
 어 政府에서는 이를 克服하기 위하여 많



은 연구를 계속해 오던중 '82年 4月 韓國健康管理協會를 設立케 하여 全國의 組織的인 健康管理事業을 推進하게 되었다.

韓國健康管理協會에서는 急進的으로 增加되고 있는 非傳染性 慢性疾患 (成人病)의 早期發見 및 豫防을 爲한 效率的인 臨床 病理의 檢査 및 檢診, 疫學的 調查研究 및 保健啓蒙을 實施하여 國民의 健康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設立하여 初創期 事業임을 勘案, '82年 事業開始 以後 全人口數의 2.5%程度를 目標人員으로 策定해서 每年 目標의 90% 以上 實績을 擧揚 하았는데 이는 國民의 生活向上에 따라 자기健康管理에 關心도가 높아져서 向後 健康管理事業을 效率的으로 運營, 推進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한 것이다.

國民健康管理事業을 보다 合理的으

로 推進하기 爲하여 檢査事業, 弘報事業, 調查研究事業 등 專門 事業別로 區分하여 當該年度에 策定된 目標人員을 檢査하고 있는데 調查研究事業은 各種 專門會議를 開催하여 學術研究를 實施하며 특히 斯界權威者의 協助를 通하여 檢査指針書 등 各種冊子를 發刊하여 未來指向的 事業營爲의 礎石을 다졌다.

弘報事業에 있어서는 非傳染性 慢性疾患의 危害에 대한 國民의 警覺心을 昂揚시키는 동시에 自發的으로 參與하여 國民 스스로 健康을 維持할 수 있도록 mass-media를 적극 活用하고 各種 檢査 슬라이드를 製作하여 大·小 組織 및 社會團體를 巡廻하여 國民과 함께 呼吸할 수 있는 契機를 마련하였고 先進化되고 있는 國民意識속에 健康管理의 重要性을 再認識시킴으로써 向後健

康福祉社會 具現의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日本을 위시하여 東南亞 一部國家와 緊密한 유대關係를 通하여 技術및 優秀職員을 相互交流, 豫防醫學的 檢診事業에 따른 各種 專門技術을 習得하여 健康管理事業의 活性化에 최선을 다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推進하여 檢査技術培養 및 人力資源의 專門化에 最大의 力點을 둘 方針이다.

偉大한 太平洋時代를 追求하기 위한 우리의 勢力은 수 많은 人力資源을 바탕으로 尖端技術을 蓄積, 經濟發展을 通하여 이룩될 수 있으므로 國家의 資本인 國民을 爲하여 여러 側面에서 보다 많은 研究와 投資가 있어야 하는데 특히 時代的 요구에 副應하기 위한 健康管理事業은 다음 몇 가지 事項을 周知, 向後 國民健康管理事業을 推進하여야 한다.

첫째, 意識構造의 改善을 통한 健康管理事業을 推進한다.

과거 새로운 文物을 받아 들이면서 부터인지 그 年代는 確實히 推定할 수 없으나 現在 우리 思考方式은 病이 誘發되어야만 治療를 한다든지 身體에 조금 불편함을 느끼면 藥局에서 營養劑를 服用하는 式의 健康管理를 하고 있으나 現代社會는 豫防醫學的 側面을 重要視하고 있고 健康할때 確認, 管理하는 方法이 健康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인 점을 周知, 健康管理方法에 對해서 새롭게 認識할 수 있도록 韓國健康管理協會13 個市·道支部를 通하여 檢査를 實施하고 有所見者에 한해서는 指定專門醫療機關에서 治療받을 수 있도록 檢査 및

治療方法을 2원화할 것이며 이에 따르는 行政制度의 改善 및 各種 諸般事項에 對해서 關係當局과 協議, 體制化시키는 한편 弘報活動을 한층 強化, 國民自發的으로 健康할때 確認, 管理할 수 있도록 推進할 計劃이다.

둘째, 生活環境을 改善한다.

前述한 바 있듯이 物質文明의 時代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文明의 利器는 環境汚染 및 各種 疾病을 隨伴하고 있다. 짧은 時日內에 新興經濟國으로 成長한 우리나라는 先進國에 비하여 經濟成長에 따른 附帶環境條件이 너무 未洽하여 많은 問題點이 있는데 政府에서도 여러 각도에서 對處하고 있지만 産業廢棄物, 汚染物質 등 갖은 惡條件속에서 우리는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惡條件下의 地域住民에 對하여 科學的 調查研究를 實施하여 原因을 分析함과 동시에 專門的, 豫防醫學的 健康管理事業을 推進하고 政府와 協議하여 制度的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셋째, 全國民을 檢査할 수 있도록 推進한다.

大都市 및 中·小都市를 제외한 一部地域에서는 全國 一日生活圈에 있으면서도 生活手段 및 地域條件에 의하여 各種 醫療惠澤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檢診車輛을 活用, 巡廻檢査를 實施하여 全國民이 檢査를 通하여 자신의 健康을 管理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零細民등 自活保護對象者는 國家의 次元에서 檢査를 實施할 수 있도록 保健當局의 支援을 받아 推進한다.

以上 몇가지 언급한 内容이외에 檢査機 資材를 科學化하여 組織的이고 體系的으로 檢査結果를 通報하고 行政業務를 電算化하여 業務能力을 向上하고 質的으로 健康管理事業을 活性化하여 現

代人과 함께 共存하고 있는 各種 疾病들을 退治하고 國民 스스로 健康을 管理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國民保健 增進에 寄與할 것이다.

(필자=健協사업과장)

토막상식 ●



100세 이상에만 조사한 앙케이트

이 세상에는 앙케이트도 많지만 100세 이상의 노인들만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는 별로 없다.

‘일본 백세회’라는 단체에서 100세 이상 노인 400명으로 부터 들은 일상생활에 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복수회답도 있음)

- 식사는 8할만 채운다. 83%
- 술은 마시지 않는다. 93%

-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 74%
- 참을 성이 강한 성격. 53%
- 착실하고 꼼꼼하다. 46%
- 특별히 건강에 조심한 적은 없다. 52%

폭음 폭식을 하지 않고 담배는 피우지 않는다는 기본적 공통요소는 있는 것 같다. 100세 이상의 장수자는 생명력 그 자체가 강하다는 것이 제일조건인 것 같다. 이 외에 52%의 사람이 날 때부터 건강했다고 답한 것은 흥미 있는 일이다.

인간의 수명의 절대적인 한계는 140세라고 하는 확실도 있다. 생명력에는 개인차가 있는지도 모르나 폭음폭식은 수명을 몇 10년 감축시킨다는 것은 틀림없다. 무엇에든지 강하면 오래 살 수 있다고 보아야겠지…?

이달의 건강 표어

병든다음 치료보다

검사 받아 예방하자

● 한국 건강관리 협회